

---

2017년 1월 23일 발행 (제12호)

SIG 보고서

## 주권적 주체되기(Becoming a Subject)

- 순종 주체되기를 넘어 주권적 주체되기 -

---

- 
- 발행일 : 2017년1월23일(월)
  - 발행인 : 양세진
  - 발행처 : SIG.소셜이노베이션그룹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공익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인용, 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IG.소셜이노베이션그룹©

# 주권적 삶의 주체되기(Becoming a Subject)

- 순종 주체되기를 넘어 주권적 주체되기 -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객체 혹은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도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의 본질적인 의미를 캐물어보고자 합니다. 자기인식의 힘을 가진 주체, 자기돌봄의 힘을 가진 주체, 자기극복의 힘을 가진 주체, 자기통치의 힘을 가진 주체, 차이를 차이화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힘을 가진 주체, 주권의 일의성을 인정하는 힘을 가진 주체로서 주권적 주체되기의 본질적인 의미를 캐물고자 합니다.

## 1. 주체되기(Becoming a Subject)의 본래적인 의미

주체는 'sub'와 'ject'의 결합어입니다. 'sub'는 말 그대로 '~아래'의 의미이며, 'ject'는 '내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체란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내보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스크린에 보내기 위해 우리는 빔프로젝터를 사용합니다. 빔프로젝터(beamprojector)는 말 그대로 '빛.beam'을 '앞으로.pro', '내보내는.ject' 물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직까지는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내보내는' 사람으로서 주체의 의미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내보내는 사람'으로 주체(subject)의 의미를 음미해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체되기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강렬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그렇게 열심히 내보내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을 위해 '돈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내보내고', '권력'을 위해 '권력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내보내고', '명예'를 위해 '명예 아래 자기 자신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과'를 위해 '성과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내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위해 '그 무엇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걸음 더 들어가서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주체가 되겠다고 살아온 삶이 사실상은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가 아니라, '돈, 권력, 명예, 성과'에 예속된 주체되기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그 무엇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주체되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와는 다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반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돈, 권력, 명예, 성과'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고자 결정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장하면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는 것일까요?

푸코는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Becoming a Subject)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란,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내가 관계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기 선택권'이나 결정권, 주도성'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는 '언제나 오직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아래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보내는' 삶 일 때 입니다. 백번을 천번을 영원히 회귀하도록 다시 태어나더라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회피하지 않고 선택하며 살아갈 바로 자기 자신 아래로, 자기 자신을 내보내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별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주권적 삶의 주체되기를 고민한다면 예속된 주체가 되고 순종주체가 되는 것과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를 혼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자신 아래에 순종하는 주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 예속된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통이 수반될 만큼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를 할 수 있도록 관계맺는 삶이 주권적 주체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때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임팩트있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상대의 권력 아래에 예속된 주체로, 순종 주체로 내어 맡길 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의 주체되기가 가능한 한에서 타자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힘을 전면적으로 자기화하도록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주권적 주체되기의 본래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 2. 자기인식의 힘을 가진 주체

주권적 삶의 주체는 자기인식의 힘을 가진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의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주체이거나 예속된 주체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주권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기인식의 힘을 가진 주체되기를 의미합니다. 그런점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자기인식(그노티 세아우톤.gnothi seauton)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아는게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임팩트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모든게 아니라면 무엇이 자기인식의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임팩트있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는 삶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여서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임팩트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역할이 바로 나 자신의 삶인지, 진정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삶인지를 아는가가 자기인식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그래서 어찌라고’라는 물음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문제해결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러한 힘을 갖는 것이 도대체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주권적 주체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인 역량은 사람들의 영혼에 영감을 주고,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임팩트있게 해결하는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캐물어 수 있는 역량입니다.

### 3. 자기돌봄의 힘을 가진 주체

주권적 삶의 주체는 자기돌봄의 힘을 가진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자기돌봄’의 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배려하기 위해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한 주간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한 해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자신을 돌보고 배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배려하며,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또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긴 시간 잠을 자는 것을 통해 힘을 얻곤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배려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돌봄과 배려의 역량만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자기돌봄(에피메레이아 헤아우톤.epimeleia heauton)의 의미는 ‘~을 위한’, 혹은 ‘~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나 관계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삶이 나 자신을 사는 삶인지에 대한 자기인식의 삶을 돌보는 것이 바로 자기돌봄의 역량인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삶이 진정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회피하지 않고 선택하며 살아갈 바로 나 자신의 삶인가에 대한 물음을 묻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임팩트있게 해결하는 과정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생기를 가진 주권적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우리가 자기돌봄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있는 삶이 바

로 나 자신의 삶인지에 대한 자기인식과 그러한 자기인식을 돌보는 자기돌봄의 힘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정당하는 마리오네트가 되든지 혹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 지배당하는 순종주체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적 주체의 역할은 결코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아래 순종하도록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권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힘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자기통치의 힘에 의해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임팩트있게 해결하는 실천주체로 살아가도록 관계 맺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권적 주체는 우선 자기인식의 삶을 순간순간 돌볼 수 있는 힘을 전면적으로 자기화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돌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을 떠나서 소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볼 수 있는 어떤 장소로 가야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일상은 누구의 삶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 하루의 일상 속에서, 업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고, 자기 자신에 은거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지내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고, 거룩함 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을 치료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등과 같은 일련의 실천들을 통해 자기돌봄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돌봄의 힘이 없는 주체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기돌봄의 힘을 가진 주체가 되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이아몬드뿐이기 때문입니다.

#### 4. 자기극복하는 힘의 주체

주권적 주체는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혁신적인 방식인지', '어떤 결과가 임팩트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소진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해가는 힘으로서 '뚝심'을 자기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그것을 뚝심있게 지속하는 힘은 분명 차이가 있을테니깐요.

니체는 이러한 힘을 '자기극복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극복의 힘'은 모든 인간이 순수 내재성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힘에 대한 니체의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기던 아이가 걷게 되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오직 자기극복하는 하는 힘으로 걷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 도구들의 활용도 있었지만 기던 아이들이 결국 마침내 걷게 된 힘은 오직 자기극복하는 힘에 의해서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은 오직 자기극복하는 힘에 의해서만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수 내재성으로서 자기극복하는 힘을 담지하고 있는 주체인 것입니다.

니체는 주권적 주체의 힘이란 자신이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를 뚝심있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극복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삶을 압도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순종주체인지 주권적 주체인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원적이고 역동적인 문제를 우리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자원을 연결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마침내 주체에게 필요한 힘은 자기극복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근본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결정적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혹은 그 상황에 자신을 예측된 주체나 순종주체로 내어 맡기지 않고 자기극복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할 것이며, 그래서 주체에겐 자기극복하는 힘을 열망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권적 주체란 '자기극복하는 힘을 열망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극복하는 힘이 요구되는 상황은 단순히 귀찮고, 피곤하고, 번거로운 문제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룬다고 해서 자기극복의 힘이 부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권적 주체에게 요구되는 자기극복하는 힘은 그런 일상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자신을 포함해서 누가 보든지 정말 결정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얼마든지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 상황아래 자신을 순종주체로 내어맡겨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주권적 주체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영혼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을 관계하는 방식에서 자기극복하는 힘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독감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암세포라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탓하며 타자에 대한 물음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한탄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기극복하는 힘을 가진 주체는 그러한 고통을 내가 왜 굳이 감당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 하는지, 이 일을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자기물음을 통해 자기극복하는 힘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적 주체는 자기극복하는 힘을 더 많이 갖기를 열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 5. 차이를 차이화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힘의 주체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은 주권적 주체되기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차이를 인정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인정하는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현상적인 차이, 개념적인 차이, 과정적인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 자체를 인정하는게 맞습니까?

차이의 철학자인 들뢰즈는 '차이를 차이화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뢰즈는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환대하고 관용한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차이 망각의 역사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들뢰즈는 우리들에게 '차이 망각'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들뢰즈는 우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차이는 '개념적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에게 색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혼돈하거나 착각해서는 안되는 본질적인 이슈입니다. 빨간

사과를 그리기 위해 빨간색이 필요한 화가가 조교에게 'red'를 달라고 하면, 문제없을까요? 혹은 '붉은 색'을 달라고 한다면요, 아니면 '빨강색'을 달라고 한다면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용어'를 사용하든지 조교는 화가가 원하는 빨간색을 갖다 줄 것입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파란색을 가져달 줄 조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면, 영화 촬영 전에 대본을 리딩하는 자리에서 꽃집에서 '장미꽃'을 말하는 장면에서, 배우가 '장미꽃'이라는 대사를 해야 할 때, 작가가 실수로 대본을 파란색으로 출력했다고 해서 '장미꽃'이라는 대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다음날은 작가가 실수로 빨간색으로 대본을 출력해왔다고 할지라도, 배우가 '장미꽃'이라는 대사를 연습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화가에게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반면에, 배우에게는 대본이 무슨 색으로 출력되든 필요한 대사만 있으면 색의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색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개념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과를 창출하는게 중요한 이슈이며, 업무태도가 성실한게 중요한 이슈이고, 출근시간을 잘 지키는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한 이슈이며, 업무를 잘 처리하는게 중요한 이슈이고, 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서로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주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상대방에게 뉘달을 할 때, 상대는 속으로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해 섭섭함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차이를 차이화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힘을 가진 주체는 자신의 개념아래에서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의 차이를 차이화하는 차이 자체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과정적 차이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의 다양한 의견과 차이를 인정하지만, 결국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는 다른 생각이나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호주관적 실천소통에 의해 공동의 소유가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해서 참여했던 주체들이 임의적으로 결정결과를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리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사업 실행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캐물어가는 힘을 가진 주권적 주체라면 임팩트 있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왜 다른 소리를 내냐고 묵살하거나 억압하기 전에,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적 경청을 하면서 상대의 차이 자체를 인정하는 차이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는 주권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명사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차이인 차이를 차이화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힘을 전면적으로 자기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6. 주권의 일의성을 인정하는 힘의 주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권적 주체는 이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권적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정, 학교, 조직,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의 모든 일상속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권적 삶의 주체인 우리 자신과 상대를 4-5년마다 돌아오는 15일간의 선거기간 동안에만 주권자로 인정하고, 투표장소에서만 주권자로 인정하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루소는 우리 자신과 타인들 모두가 주권적 삶의 주체로서 주권자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어떠한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손상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상대에게 급여를 주는 리더라고 해서 상대를 복종시킬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상대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복종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해 천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 앞부분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말하면서 개인보다 가정을, 개인보다 학교를, 개인보다 조직을,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가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7조 2항의 뒤 부분을 보면, 소위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말은 언제나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계약을 맺는다. 그 계약의 부담은 전적으로 당신이 지고, 혜택은 전적으로 내가 누린다. 내가 원하는 한, 나는 그 계약을 지킬 것이니 당신도 역시 지켜라.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는 그 계약을 파기할 것이다.’

주권적 주체되기를 위해 우리가 주목하고 잊지말아야 할 가치는 어떠한 이유와 조건에 의해서도 상대를 나의 의지와 힘에 의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라도 주권적 주체인 자기 자신을 순종주체나 예속된 주체로 내어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우며,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 간단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주권자가 아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의 일의성을 인정하는 주체의 힘입니다. 주권적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상대를 주권적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주권의 일의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실천적 지혜의 힘을 전면적으로 자기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SIG.